

'전주문화재야행' 내달 22일 열린다

10월 22~23일까지 경기전·전라감영 일원서 운영... 8개 분야 21개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진행

전주한옥마을 밤의 정취를 느끼며 역사와 놀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전주문화재야행이 다음 달 열린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다음 달 22일과 23일 경기전과 전라감영 일원에서 '2021 전주문화재야행(夜行)'을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6월에 이어 2회차로 열리는 이번 문화재야행은 시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당초 일정보다 한 달 뒤로 미뤄 개최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약을 받아 운영할 예정으로, 구역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고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추진키로 했다.

문화재야행은 경기전 4개 구역과 전라감영 1개 구역 등 총 5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공연·체험·야경 등 총 8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5개 구역에서는 ▲왕과의 산책 ▲경

기전 준비 실록 ▲치유의 경기전 ▲사진으로 만나는 문화재의 밤 ▲지역 예술가 무대 ▲태조와 야행을 만나다 ▲전라감영이 돌아왔다 ▲전라감영 야외 방탈출 게임 등이 펼쳐진다.

또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슬기로운 집콕생활 ▲전주문화재 VR 건설 프로젝트 ▲마이크로프런트 전주 건설 영상 제작 ▲한밤의 '계' 이득 ▲거리의 화공 ▲카카오톡 방 탈출 대국민 O·X 퀴즈 ▲전주굿즈 라이브 커머스 등이 마련됐다.

사전예약은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 전주문화재야행 공식 홈페이지(www.jonjunight.com)를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추진된 1차 전주문화재야행에서는 사전예약이 5분 만에 매진됐다.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 관계자는 "올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는 전주문화

재야행은 기획부터 공연, 행사 운영까지 역량 있는 지역 인재들의 참여를 통해 더욱더 전주다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되고 있다"면서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특별한 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점검을 통해 참여자들이 만족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주문화재야행을 통해 전주의 역사를 알고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문화재야행은 지난해 4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꼭 가봐야 할 국내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다음 달 22일과 23일 경기전과 전라감영 일원에서 '2021 전주문화재야행(夜行)'을 운영한다.

덕진공원 시티투어·예술공연

전주시,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운영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와 덕진공원을 연계한 시티투어가 선을 보인다.

전주시는 25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덕진공원 시티투어 및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옥마을 등 전주 주요 관광지와 덕진공원을 연계한 시티투어와 전주의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주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덕진공원 시티투어는 두 가지 테마로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덕진공원 시티투어 및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연생태공원을 통한 전주 힐링 투어'의 경우 전주수목원~동물원~건지산 편백나무숲~오송재 생태공원~흔들문화공원~덕진공원을 잇는 코스로 구성됐으며, '전주의 숨은 이야기'를 담은 시티투어는 경기전~전라감영~서노송예술촌~덕진공원을 둘러보는 코스로 짜여졌다.

시티투어의 마지막 코스인 덕진공원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한 시간가량 공연이 펼쳐진다. 국악, 현대음악, 탭댄스,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전주 예술가들이 매주 색다른 공연을 선보인다. 시티투어 이용방법만 아니라 덕진공원을 찾는 관광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시티투어 이용금액은 여행자 보험 가입비와 기념품 비용을 포함해 성인 기준 5000원이다. 예약은 문화이리 홈페이지(www.cultureari.com)에서 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가능인원을 준수해 참가자 모집이 이뤄진다.

/김윤상 기자

호성동 천마배수지 상부에 전주시민햇빛발전소 2기 건립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주시민햇빛발전소 2기가 호성동 천마배수지에 추가로 생겼다.

전주시와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사장 유혜숙)은 천마배수지 상부에 제2·3호 전주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로써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효자배수지 상부에 위치한 1호와 송천동 어울림체육센터 옥상에 조성된 4호에 이어 총 4기로 늘게 됐다.

2·3호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 260여 명, 약 3억800만 원의 출자금을 통해 총 198kW(각 99kW) 규모로 준공됐다.

2~3호 전주시민햇빛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총 4기의 발전소에서 연간 약 50만6153kW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인 가족이 한 달 평균 350kWh의 전력 소모를 한다고 가정하면 약 1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소나무 3만15760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236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으로, 시민햇빛발전소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전주시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온라인 개최

내달 23~29일 지역 40여개 평생학습기관·단체와 진행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축제가 온라인으로 펼쳐진다.

전주시는 다음 달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지역 40여 개 평생학습기관·단체와 함께 '나에게 ON 평생학습'을 주제로 제15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을 개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취소됐다 올해 다시 열리게 됐다.

그간 전주 곳곳의 평생학습기관·단체에서 열린 행사와 전시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되며, 3일간 진행되던 행사기간도 1주일간으로 늘리고 3주간의 사전행사도 마련키로 했다.

이번 평생학습한마당은 평생학습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배움 ▲나눔 ▲

함께 등 3개 영역, 8개 분야, 총 5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개막일인 23일에는 학습형 온라인 플랫폼인 '전주야, 학습e 땀기지'와 성인문해 학습자들의 온라인 전시전인 '술잔히 하네', 학습과 환경을 연계한 '전주서 줌김 하자' 등이 운영된다.

특히 '전주야, 학습e 땀기지'의 경우 전주정신과 인권, 전주 환경 등 전주를 학습할 수 있는 10분 내외의 특강과 함께 퀴즈를 풀고 경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추진된다.

이어 24일에는 제철 전주푸드를 활용한 요리와 홈트레이닝, 손바느질 등 일상 속 평생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 ON다'가 진행되며, 25일부터 29일까지는 전주 곳곳의 평생학습기관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당근

평생학습(당신 근처의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보이는 라디오' 등이 실시된다.

본 행사에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는 사전행사도 운영된다. 시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오늘부터 1일'과 목공교실, 플라워 아트, 수제도장 만들기 등 매주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주간 평생학습'이 기획됐다.

시는 이번 평생학습한마당이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만큼 SNS 등을 활용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약 없는 축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제15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신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onju.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63-281-5269)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기센터, 도시농업 기초과정 교육 운영

전주시가 초보 도시농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나선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다음 달 27일까지 도시농업을 시작하는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2021 도시농업 기초과정' 교육을 운영한다.

도시농업 기초과정은 ▲도시농업의

이해 ▲배추, 무, 상추 등 텃밭 작물 재배법 ▲텃밭 관리 ▲친환경 농법 등을 중심으로, 매주 수·금요일마다 총 10회, 4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집합 또는 비대면 교육을 병행

해 추진할 예정이다.

황권주 소장은 "도시농업 수요에 부응해 도시농업 텃밭재배교육, 주말농장,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도시농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파트 경비원 냉난방기 지원

전주시, 공동주택 단지 58곳 대상 단지별 150만원 설치비용 지원

전주시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경비원들을 위해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58곳을 대상으로 단지별 150만 원의 냉난방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비원 쉼터에 냉난방기가 없어 신규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달 중으로 완공·덕진구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시는 58곳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내년에 경비원 쉼터가 아예 없거나 지하에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쉼터를 지상에 마련할 수 있도록 단지별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공동주택 경

비원들을 위한 쉼터와 냉난방기 설치를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전주시 주택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쉼터 조성비용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을 위한 심사 기준도 법제화됐다. 또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편의 및 근무시설 지원을 위해 사용검사 후 20년이 지나야 했던 경과기간 규정과 30%의 자부담 규정도 폐지됐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다니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하는 것이 결국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만큼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